

행정복지위원회-주민자치연합회 간담회 결과보고

〈 '24. 7. 23.(화), 행정복지전문위원실 한태희(7443) 〉

□ 간담회 개요

- (일 시) 2024. 7. 23.(화) 16:00 ~17:40
- (장 소) 의정실(601호)
- (참 석) 행복위 위원, 주민자치연합회, 市 자치행정국장 등 관계자
- (내 용) 주민자치회 운영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관련 개선사항 등

□ 주요 발언 내용

- 주민자치연합회 주요 의견
 - ① 주민자치회에의 위탁사업 실시, ② 복검 시설사용료 면제, ③ 65세 이상 무료수강생 조정, ④ 면지역 주민자치업무 담당자 지원, ⑤ 주민자치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의 공동수행, ⑥ 임기나 복지차원의 주민자치회 처우 개선, ⑦ 마을계획 사업예산 증액, ⑧ 읍·면·동 예산협의회 회장 선출방식 변경, ⑨ 직능단체 중복가입 및 통장 연임제 제한 등을 제안함
 - 주민자치회 활동 과정에서 이·통장에 비해 역할이나 처우 등에 있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며, 이러한 의견개진 과정이 지난 수년간 쳇바퀴 돌듯 반복되고 있어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진일보가 있어야 할 것임
 - 모쪼록 주민자치연합회와 집행부가 논의해 온 사항들에 대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깊은 고민과 함께 조례 제·개정 등에 있어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람

○ 행복위 위원 주요 의견

- (김현미 위원장) 이·통장과 주민자치회를 비교했을 때 행정적 역할 측면에서 수직적, 그리고 수평적 조직으로 서로 다른 면이 있어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필요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공동수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만큼 만일 제도적으로 공동수행이 불가능하다면 중요그룹으로라도 주민자치회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볼 필요가 있음
- (김영현 부위원장) 연합회에서 제안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 재정적인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한편, 개선이 어려울 경우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아산시와 같이 주민자치회에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임
- (여미전 위원)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에 이어서 주민자치 연합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의견을 주시면 조례안 등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홍나영 위원) 주민자치회와의 형평성을 위해 통장 연임에 횟수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 더욱 고민할 수 있도록 하겠음

□ 현장 사진

